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1 RY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Rye」 (원서 PDF 88~93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보수주의자가 만든 복지국가는 정말 '공짜'인가."

이 장은 저자가 직접 만든 요리, 토마토 살사와 구운 고등어를 얹은 호밀 크리스프브레드로 시작한다. 1980년대 중반 다들 미국으로 유학 가던 때 영국을 고른 저자는 비경제학자들에게 '최고의 추리 소설이 나오는 나라라서'라고 둘러댔고, 애거사 크리스티의 A Pocket Full of Rye를 읽으며 품었던 '호밀이 뭘까'라는 궁금증을 영국에 가서야 풀었다. 이야기는 북유럽의 상징이 된 호밀을 따라 독일로 건너가, 호밀을 기르는 융커와 중공업 자본가를 묶은 비스마르크의 '철과 호밀의 결혼', 그리고 그가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세운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로 이어진다. 저자는 복지국가가 부자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를 주는 제도라는 오해를 반박하며, 복지국가는 모두가 값을 내고 함께 대량으로 사서 값을 낮추는 사회 보험 묶음이자 자본주의가 낳는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장(오크라)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92쪽 ¶5) / 진보 세력이 아니라 비스마르크가 처음 만들었다(90쪽 ¶4~¶5) /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보험 묶음(92쪽 ¶2~¶3) / 호밀 덕분에 누리는 안전과 번영(93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to put it mildly /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 a pat answer /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 to keep socialism at bay / 'buying off' workers / So is its very nature /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 a humble, hardy grain
6	지칭 추론	he · his · them이 비스마르크와 융커 사이를 오가는 90쪽 ¶2 / them(88쪽 ¶3 = 경제학자 · 교사 · 친구들) · it(88쪽 ¶3 = career) / her(89쪽 ¶2 = 미스 마플) / It(90쪽 ¶3 = 동맹) / They · it(91쪽 ¶2 = 사회주의자들 · 복지국가) / It(92쪽 ¶2 = 복지국가) / that(92쪽 ¶3 = healthcare cost)
7~8	내용 일치·불일치	호밀의 나라(89쪽 ¶5~90쪽 첫 줄) / 영국에서 맛본 호밀(89쪽 ¶4) / 1980년대 중반 · 100권 · 20억 권 · 1866~8 · 33% · 1871 · 1879 · 1883 · 1884 · 1889 · 1878~1888 · 1927 · 1905 · 2018 · 27% · 14% · 40% · 2.5배 · 17% · 6.8% · 12% · 1930 · 1980
9~10	**어법**	to put it mildly · 동명사 주어 · 과거완료 수동 · be disillusioned by · than 뒤 도치 · stop + O + from -ing · 독립분사구문 · 전치사구 도치 · whose ·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 · the last + 명사 + to have p.p. · so ~ that · get + O + (to) V · allow + O + to V · It was ~ who 강조 · be credited for · not ~ because · unless · It is ~ that 강조 · So + V + S · 삽입절 it is believed · 분사구문(조건) · compare A with B · without 가정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hrewd↔naive · hardy↔delicate · ditch↔keep · superior↔inferior · propel↔hinder · catch up with↔fall behind · consolidate↔weaken · overthrow↔uphold · embrace↔reject · burdensome↔light · fragmented↔unified · inevitable↔avoidable · expensive↔cheaper
12	빈칸 추론	rye is something similar to wheat(89쪽 ¶3) / welfare benefits are not free(91쪽 ¶5) / by buying in bulk(92쪽 ¶3) / the inevitable insecurity that capitalism creates(92쪽 ¶5)
13	문장 삽입	복지국가의 본질에 대한 오해(91쪽 ¶3~¶4): 기원만이 아니라 본질도 오해 →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를 준다는 생각 → 그 '공짜'는 부자의 세금으로(it is believed) → 부자에게 무임승차 → 'welfare scroungers'
14	무관한 문장	추리 소설 이야기(88쪽 ¶4~89쪽 ¶1)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당시 한국인의 유학 = 미국 유학, 88쪽 ¶1)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최초의 복지국가(90쪽 ¶6~91쪽 첫 줄): 1871 산재 보험 → 일부 노동자만이지만 세계 첫 공적 보험 → 1879 권력 강화 · 1883 건강 보험 · 1889 연금 · 1884 확대 → 실업 보험은 프랑스, 그래도 첫 복지국가
16	요약문 완성	'공짜'는 없다(91쪽 ¶5~92쪽 ¶1):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27% ↔ 14%) → 이용하는 시점에만 무료(NHS)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나라 · 비율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80년대 중반(유학) · 100권 넘게 · 20억 권 · 1866~8(핀란드 기근) · 33%(독일 ↔ 폴란드) · 1871(통일 · 산재 보험) · 1879(철과 호밀의 결혼) · 1883(건강 보험) · 1884(산재 보험 확대) · 1889(연금) · 1878~1888(사회주의자 법) · 1905(프랑스) · 1927(독일 실업 보험) · 2018 · 27% · 14% · 40% · 2.5배 · 17% · 6.8% · 12% · 1930 · 1980 · 2010~16. 1883은 건강 보험, 1884는 산재 보험 확대, 1889는 연금이다. 나라도 많다(터키 · 러시아 · 폴란드 · 독일 · 핀란드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아일랜드 · 스위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러시아 ↔ 폴란드(1인당 소비), 독일 ↔ 프랑스(첫 실업 보험), 진보 세력 ↔ 비스마르크, 금지 ↔ 금지까지는 못함, 27% ↔ 14%, 최고 ↔ 최악의 건강 기록, 마플 ↔ 푸아로, 진한 빵 ↔ 가벼운 빵). 전언 · 단서(it is believed · may (but may not) · sometimes wrongly · Some of you may not be convinced)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Rye」 (88~93쪽)

논증형(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영국 유학과 '추리 소설' → 크리스티와 '호밀이 뭘까' → 호밀 맛보기 · 호밀의 나라 독일 → 철과 호밀의 결혼 → 비스마르크의 또 다른 유산 = 복지국가 → 사회주의를 막으려던 복지 → 좌우의 수용 → '공짜'라는 오해 → 모두가 낸다 → 함께 사는 사회 보험 · 미국 의료 → 결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은 호밀 덕분). 핵심 축은 **복지국가에 대한 통념(진보의 산물 · 공짜) vs 실제(보수주의자의 발명 · 모두가 내는 보험)**, 그리고 **분산된 구매 vs 집단 구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8 [제목]	요리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토마토 살사 + 구운 고등어 / 저자의 요리 · 멸치 액젓 약간
88 ¶1~¶3	영국 유학	1980년대 중반 · 유학 = 미국 / 더 다원적인 영국 경제학 / 둘러댄 대답 = 추리 소설
88 ¶4~89 ¶1	추리 소설	셜록 홈스 · 고전 100권 넘게 / 최고 = 애거사 크리스티(20억 권)
89 ¶2~¶3	호밀이란?	A Pocket Full of Rye · 미스 마플 / homil = '북방 유목민의 밀'
89 ¶4	호밀 맛보기	Ryvita · 펌퍼니켈은 너무 묵직 · 캐러웨이 / 핀란드(1866~8 기근)
89 ¶5~90 첫 줄	호밀의 나라	터키 원산 · 북유럽의 상징 / 러시아 · 폴란드 · 독일(33%)
90 ¶1	철과 호밀의 결혼	비스마르크가 주선한 융커 + 중공업 자본가 동맹
90 ¶2	1879년의 전환	국민자유당을 버림 / 중공업 관세 ↔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90 ¶3	동맹의 결과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음 / 비싼 식량은 큰 문제 아님
90 ¶4~¶5	또 하나의 유산	복지국가 / 진보 세력이 아니라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처음
90 ¶6~91 첫 줄	최초의 복지국가	1871 산재 보험 · 1883 건강 보험 · 1884 확대 · 1889 연금 / 실업 보험은 프랑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1 ¶1	도입의 까닭	반사회주의자 · 1878~88 사회주의자 법 /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91 ¶2	좌우의 수용	처음엔 사회주의자들이 반대 → 대공황 뒤 좌파 → 2차 대전 뒤 중도 우파도
91 ¶3~¶4	본질에 대한 오해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 · 부자의 세금 · 'welfare scroungers'
91 ¶5~92 ¶1	공짜는 없다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27% ↔ 14%) / 이용 시점에만 무료(NHS)
92 ¶2~¶3	사회 보험 묶음	모두가 함께 사는 보험 · 재분배는 주된 역할 아님 / 대량 구매로 싸게
92 ¶4	미국의 의료	GDP 17% · 최악의 건강 기록 / 쪼개진 체계 · Groupon
92 ¶5~93 ¶1	결론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더 역동적으로 / 호밀 덕분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유학지	대부분의 한국인 – 유학 = 미국 유학	저자 – 영국(다원적 경제학 · '추리 소설')
경제학 교육	한국 학부 – 좁고 기술적인 신고전파	당시 영국 – 케인스 · 마르크스 학파 등 더 다원적
유학의 까닭	진짜 까닭 –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환멸	둘러댄 대답 – 최고의 추리 소설이 나오는 나라
좋아하는 탐정	미스 마플 – 날카로운 관찰 · 재치 · 심리 이해	에르큘 푸아로 – 그래도 저자가 가장 좋아함
호밀빵	진한 빵(펌퍼니켈) – 저자 입맛에 너무 묵직	가벼운 빵(특히 캐러웨이 씨) – 아주 좋아함
호밀과 밀	호밀 – 거친 북쪽 기후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곡물	밀 – 더 연약한 사촌 · 더 잘 알려짐
철과 호밀의 결혼	융커 – 주로 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 호밀 생산	중공업 자본가 – 서쪽 라인란트 · 철강
맞교환	중공업 – 뛰어난 영국 생산자에 맞선 관세 보호	융커 –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보호
복지국가의 기원	통념 – 진보 세력(뉴딜 민주당 · 영국 노동당 · 스칸디나비아 사민당)	사실 –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
사회주의자의 태도	처음 – 노동자를 '매수'해 혁명을 막는 수단이라며 반대	나중 – 개혁 성향이 이겨 확대를 요구(특히 대공황 뒤)
복지국가의 본질	오해 – 부자의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를 줌	저자 – 모두가 내고 함께 대량으로 사는 사회 보험 묶음
의료비	미국 – GDP 17% · 쪼개진 체계 · 최악의 건강 기록	다른 부자 나라 – 6.8%(아일랜드)~12%(스위스) · 더 통합된 체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ackerel … rye crispbread ([제목])	(my recipe) /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토마토 살사(파슬리 · 토마토 · 올리브 · 고추 · 멸치 액젓 약간) + 구운 고등어 필레 조각
영국 유학	**1980년대 중반** 대학원 /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이 의아해함 · 당시 한국인의 유학 = 미국 유학 / 영국 = 쇠퇴하는 나라로 여겨짐 · 한국과 역사적 연결 없음
유학의 까닭	신고전파 경제학에 환멸 · 당시 영국 경제학 = 더 다원적 / 주변 = '경력 자살' / 비경제학자에게 = 'deduction novels'(choori-sosurl의 직역)의 본고장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추리 소설	어린 시절 Arthur Conan Doyle의 셜록 홈스로 입문 / 중등학교 때 고전 **100권 넘게**(Maurice LeBlanc · Ellery Queen · Georges Simenon · Raymond Chandler · G. K. Chesterton 등)
Agatha Christie	저자에게 이 장르의 군주 · **20억 권** 판매 / 거의 반세기 · 여러 번 다시 읽어도 놀람(The ABC Murders ·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등)
A Pocket Full of Rye	미스 마플이 나옴 · 제목은 동요 'Sing a Song of Sixpence'에서 / 93쪽 각주 i: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저자가 좋아하는 작품 · 부당하게 저평가
두 탐정	Miss Marple = 무해해 보이는 미혼 여성 · 날카로운 관찰 · 재치 · 심리 이해 / Hercule Poirot = 오만 ·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만 인정 많은 벨기에 탐정 · 저자가 가장 좋아함
homil	'북방 유목민의 밀' · mil = 밀 · ho = 중앙 · 북아시아 유목민에게서 왔다고 (때로는 잘못) 여기는 것에 붙이는 접두사 / 만주 · 몽골 · 티베트 · 우즈베키스탄 · 터키
영국에서 맛본 호밀	첫 음식 = Ryvita(영국의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고소하고 살짝 신맛 · 대학원생 시절 밤참 / 펌퍼니켈 같은 진한 빵은 너무 묵직 · 가벼운 빵(특히 캐러웨이 씨)을 좋아함
핀란드	소나무 껍질 가루를 섞은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 소나무 껍질 가루 = 예전의 기근 음식 ·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을 겪은 나라(**1866~8**)
호밀의 나라	원산 = 오늘날의 **터키** · 북유럽 식량 체계의 상징 / 최대 소비국 = **러시아** / 1인당 소비 최대 · 최대 수출국 = **폴란드** / 최대 생산국 = **독일**(폴란드보다 **33%** 많음)
marriage of iron and rye	비스마르크(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주선한 동맹 / 융커(주로 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 중공업 신흥 자본가(서쪽 라인란트)
1879년	**1871년** 통일 이후의 연정 파트너 국민자유당(자유무역 지지)을 버림 / 라인란트 중공업(철강)에 관세 ↔ 융커에게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미국 곡물	북아메리카 대평원 정착 증가(Little House on the Prairie · 「Okra」) · 대평원에서 동해안 주요 항구로 곡물을 나르는 철도
동맹의 결과	'Iron Chancellor' / 철강 · 기계 · 화학이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음 / 식량은 더 비쌌지만 소득이 높아져 큰 문제가 아님
최초의 복지국가	**1871년** 산재 보험(세계 첫 노동자 공적 보험 · 일부 노동자만) / **1883년** 공적 건강 보험 · **1889년** 공적 연금(둘 다 전례 없음) / **1884년** 산재 보험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
실업 보험	세계 첫 실업 보험 = 프랑스 / 93쪽 각주 ii: 독일은 **1927년** · 그 전에 **19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도입
반사회주의자 비스마르크	**1878~1888년** 사회주의자 법(사회민주당 활동을 크게 제한 · 금지까지는 아님) / 삶의 큰 충격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끌린다고 봄
복지국가의 수용	처음 = 사회주의자(특히 독일)가 반대('매수') / 좌파 = 개혁 성향이 이겨 확대 요구(특히 대공황 뒤) / 2차 대전 뒤 = 유럽 중도 우파도(소련 블록과의 체제 경쟁)
'공짜'라는 오해	'welfare scroungers' = 복지 수급자를 비난하는 영국 표현 / 실제 =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부가가치세 · 일반 판매세 · 수입 관세) / 이용 시점에만 무료(영국 NHS)
간접세 부담(영국, 2018)	가장 가난한 **20%** 가구 = 소득의 **27%** · 가장 부유한 **20%** = 약 **14%** / 93쪽 각주 iii: 생활임금 이하를 주고 조세 피난처로 세금을 피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미국의 의료비	GDP 대비 다른 부자 나라보다 적어도 **40%** · 많게는 **2.5배** / 17% ↔ 아일랜드 **6.8%**~스위스 **12%** / 보편적 공적 건강 보험이 없는 유일한 부자 나라 · 최악의 건강 기록
복지국가의 성장	93쪽 각주 v: **1930년** GDP의 1~2%(독일 4.8%) → **1980년** 평균 15.4% → 오늘날(**2010~16**) 20.8%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도 확산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Rye」 (원서 PDF 88~93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1 영국 유학과 '추리 소설' 88쪽 ¶1 ~ 89쪽 ¶1

원문 위치 원서 88쪽 ¶1 ~ 89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8쪽 [제목]	Mackerel with tomato salsa on rye crispbread (my recipe)	저자 자신의 요리 · 멸치 액젓 약간
★	88쪽 ¶1 첫 문장	When I decided to pursue my graduate studies in Britain in the mid-1980s, most Koreans … were puzzled, to put it mildly	시기 · 독립부정사
★	88쪽 ¶1 둘째 문장	studying abroad for Koreans meant studying in the US	동명사 주어 · 무관한 문장의 출처
▲	88쪽 ¶1 셋째 문장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country in decline … as my country had been deemed unworthy of the British Empire's famously acquisitive attention	과거완료 수동 · 저자의 재치
★	88쪽 ¶2 첫 문장	I was disillusioned by the rather narrow, technical Neoclassical economics	유학의 진짜 까닭 · 어법 (A)
▲	88쪽 ¶2 둘째 문장	a more pluralistic approach to economics than did their US counterparts	than 뒤 도치 · 어법 (B)
◆	88쪽 ¶3 첫 문장	I was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비유 · 과거완료
★	88쪽 ¶3 둘째 문장	a pat answer … 'deduction novels' – the literal translation of choori-sosurl	둘러댄 대답
▲	88쪽 ¶3 셋째 문장	This seemed to stop most people from asking any further questions, even if I could tell that they thought me weird	stop + O + from -ing · 어법 (C)
★	88쪽 ¶4 첫~둘째 문장	the Sherlock Holmes stories of Arthur Conan Doyle … 'The Red-Headed League'	인물 · 작품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8쪽 ¶4 셋째 문장(89쪽 첫 줄까지)	I read over one hundred classic 'deduction novels'	숫자
★	89쪽 ¶1 첫 문장	The undisputed monarch of the genre … Agatha Christie … her two billion book sales providing proof	숫자 · 독립분사구문
▲	89쪽 ¶1 둘째 문장	I still get jolts from the paradigm-shifting plot devices and narratives of Christie classics	반세기 뒤에도 — 일치

내용

1980년대 중반 저자가 영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로 했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은 좋게 말해 어리둥절해했다. 당시 한국인에게 유학이란 곧 미국 유학이었다(조금 덜하긴 해도 지금도 그렇다). 다른 나라, 특히 영국에는 그냥 가지 않았다. 영국은 쇠퇴하는 나라로 여겨졌고, 한국과 역사적 연결도 없었다(저자의 나라는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 들기로 유명한 대영제국의 관심조차 받을 만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저자가 영국을 고른 것은 한국의 학부 과정에서 배우던, 꽤 좁고 기술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영국의 경제학과들은 케인스 학파 · 마르크스 학파와 다른 학파를 가르치며 미국의 경제학과들보다 더 다원적으로 경제학에 접근했으므로, 저자에게는 영국이 경제학을 더 넓게 공부하기에 더 좋은 곳으로 보였다. 이 까닭을 들은 경제학자 · 교사 · 친구들 대부분은 저자가 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력 자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경제학자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저자는 왜 가느냐고 물으면 준비해 둔 대답을 했다. 자신은 '추리 소설'(detective novels를 가리키는 한국어 choori-sosurl을 직역한 'deduction novels')의 열렬한 팬이고, 최고의 추리 소설이 나오는 곳이 영국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별나다고 여기는 것이 보이긴 했지만, 이 대답에 대부분은 더 묻지 않았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서 코넌 도일의 셜록 홈스 이야기로 추리 소설을 처음 접했다. 'The Red-Headed League' 같은 단편은 기발한 줄거리로 저자를 놀라게 했고, The Sign of Four ·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같은 장편의 끔찍한 장면은 저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중등학교 때는 모리스 르블랑(그의 아르센 뤼팽 이야기는 넷플릭스 시리즈 Lupin으로 멋지게 되살아나고 있다), 엘러리 퀸, 조르주 심농, 레이먼드 챈들러, G. K. 체스터턴 등의 고전 '추리 소설'을 100권 넘게 읽었다. 그러나 저자에게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듯) 이 장르의 이론의 여지 없는 군주는 애거사 크리스티이며, 20억 권의 판매 부수가 그 증거다. 해가 지나며 저자는 존 르 카레 · 요 네스뵈 · 안드레아 카밀레리 · 프레드 바르가스 같은 작가의 작품을 탐독하며 고전 퍼즐형 추리 소설보다 넓은 범죄 · 첩보 소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도 거의 반세기가 지나 여러 번 다시 읽은 뒤에도 The ABC Murders ·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 4:50 from Paddington · And Then There Were None · Five Little Pigs 같은 크리스티의 고전에서 판을 뒤집는 장치와 서술에 여전히 깜짝 놀란다.

어법

- **most Koreans, including my parents, were puzzled, to put it mildly** : to put it mildly = 독립부정사(좋게 말해서). puzzled = 감정을 느끼는 쪽이라 과거분사. including my parents = 삽입된 전치사구.
- **At the time (as it still does, albeit a little less), studying abroad for Koreans meant studying in the US** : 동명사 주어(studying abroad) → 단수 동사 meant. mean + 동명사 = ~을 뜻하다. does = means studying in the US를 대신하는 대동사. albeit = 비록 ~이지만(뒤에 구).
- **Britain,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country in decline and didn't even have any historical links with Korea (as my country had been deemed unworthy of …)** : 계속적 which의 동사 was considered · didn't have가 and로 병렬. as = 이유. had been deemed = 과거완료 수동(deem + O + 형용사의 수동).

- **I was disillusioned by the rather narrow, technical Neoclassical economics I was being taught** : be disillusioned by = ~에 환멸을 느끼다(수동). economic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as being taught = 과거진행 수동.
- **British economics departments offered a more pluralistic approach to economics than did their US counterparts** : than 뒤 대동사 did + 주어 도치(= than their US counterparts did). did = offered를 대신한다.
- **most of them told me that I was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 before + 과거완료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it = career.
- **This seemed to stop most people from asking any further questions, even if I could tell that they thought me weird** : stop + O + from -ing = O가 ~하지 못하게 하다(from 뒤 동명사; to ask는 오답). think + O + 형용사(weird). even if = 양보.
- **The undisputed monarch of the genre for me, however, was Agatha Christie – as she is for many people – her two billion book sales providing proof** : 대시 뒤 = 독립분사구문(의미상 주어 her two billion book sales + providing). as she is =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듯.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ursue	추구하다, (공부를) 밟다	follow	abandon
puzzled	어리둥절한	baffled	—
albeit	비록 ~이지만	although	—
decline (n.)	쇠퇴	downturn	rise
deem	여기다	consider	—
unworthy	~할 가치가 없는	undeserving	worthy
acquisitive	손에 넣으려 드는, 탐욕스러운	greedy	—
disillusioned	환멸을 느낀	disenchanted	—
pluralistic	다원적인	diverse	—
counterpart	(대응하는) 상대	equivalent	—
pat (a.)	준비된, 판에 박힌	glib	—
ingenuity	기발함, 독창성	inventiveness	—
undisputed	이론의 여지가 없는	unchallenged	disputed
devour	탐독하다	consume	—

내용 일치 1980년대 중반 영국 대학원 ·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인이 의아해함 · 당시 유학 = 미국 유학 · 영국 = 쇠퇴하는 나라 · 한국과 역사적 연결 없음 / 진짜 까닭 = 좁고 기술적인 신고전파에 대한 환멸 · 당시 영국 경제학은 더 다원적(케인스 · 마르크스 등) · 주변에서는 '경력 자살' / 비경제학자에게 = '추리 소설'(choori-sosurl의 직역 deduction novels) 대답 · 대부분 더 묻지 않음 / 어린 시절 셜록 홈스로 입문 · 중등학교 때 고전 100권 넘게 · 최고 = 크리스티(20억 권) · 반세기가 지나도 놀람. **밑줄 의미** to put it mildly = '어리둥절' 정도로는 부족할 만큼 놀랐다 / committing career suicide – even before it had begun = 시작도 하기 전에 경력을 망치는 선택 / a pat answer =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대답 / unworthy of the British Empire's famously acquisitive attention = 무엇이든 탐내던 대영제국조차 탐내지 않았다는 저자의 비꼼 / 지칭: 88쪽 ¶1 my country = 한국 / 88쪽 ¶2 their US counterparts = 미국의 경제학과들 / 88쪽 ¶3 this reason = 다원적 경제학 · them = 경제학자 · 교사 · 친구들 · it(had begun) = career · they(asked · thought) = 비경제학자들 / 88쪽 ¶4 his = 코넌 도일의 · their plots = 단편들의 / 89쪽 ¶1 she · her = 크리스티.

한 줄 요약 1980년대 중반 미국 대신 영국 유학을 고른 저자는 진짜 까닭인 다원적 경제학 대신 '추리 소설'을 둘러댔고, 그가 가장 아끼는 작가는 애거사 크리스티다.

11-2 호밀이란 무엇인가 – 추리 소설에서 독일까지 89쪽 ¶2 ~ 9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89쪽 ¶2 ~ 9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9쪽 ¶2 첫 문장	Among my favourite Agatha Christie stories was A Pocket Full of Rye, featuring Miss Marple	전치사구 도치 · 작품
◆	93쪽 각주 i	This is not one of the most well-known of her works … I think it is unfairly undervalued	저자의 평가
▲	89쪽 ¶2 첫 문장	the harmless-looking spinster whose shrewd observation, sharp wit and profound understanding … make her a most formidable sleuth	whose · make + O + 명사
★	89쪽 ¶2 첫 문장(괄호)	although Hercule Poirot … is still my favourite	가장 좋아하는 탐정 — 마플 함정
▲	89쪽 ¶2 셋째 문장	Never mind the nonsensical nature of the nursery rhyme, 'Sing a Song of Sixpence', from which the title is derived	전치사 + 관계대명사
★	89쪽 ¶3 첫 문장	Homil means 'northern nomads' wheat' – mil meaning wheat and ho being a prefix	독립분사구문 · 빈칸 문항
◆	89쪽 ¶3 첫 문장	anything that we think (sometimes wrongly) came from nomadic peoples of Central and Northern Asia	삽입절 · 단서 sometimes wrongly
★	89쪽 ¶3 둘째 문장	So I knew that rye is something similar to wheat … never having eaten anything made with the grain	빈칸 1순위 ·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
★	89쪽 ¶4 둘째 문장	Ryvita, the British rye crispbread, was the first thing I got to try	내용 불일치 문항
▲	89쪽 ¶4 다섯째 문장	I found dark rye breads, like the German pumpernickel, a bit too dense … but loved the lighter ones, especially those with caraway seeds	find + O + 형용사 · 불일치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9쪽 ¶4 여섯째 문장	pine bark flour (which used to be a famine food; Finland is actually the last European country to have experienced famine – during 1866–8)	숫자 · 완료 부정사
★	89쪽 ¶5 첫 문장	Rye is originally from modern-day Turkey … a hardy grain … where its more delicate cousin wheat cannot	원산지 · 생략
★	89쪽 ¶5 둘째 문장	Russia claims the title of the biggest consumer … Poland has the highest per capita consumption and is also the biggest exporter	일치 1순위
★	90쪽 첫 줄(89쪽 ¶5 셋째 문장)	the world champion of rye is Germany,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 33% more than … Poland	숫자
▲	90쪽 첫 줄(89쪽 ¶5 넷째 문장)	Rye is so important for Germany that it even features prominently in its historiography	so ~ that · 다음 유닛으로 잇는 고리

내용

저자가 좋아한 크리스티 작품 가운데 하나는 A Pocket Full of Rye였다(93쪽 각주 i: 크리스티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저자가 좋아하는 작품이며,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는 미스 마플이 나온다. 무해해 보이는 미혼 여성이지만 날카로운 관찰력, 예리한 재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에 매우 만만찮은 탐정이다(그래도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탐정은 멋진 콧수염을 기른, 오만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만 인정 많은 벨기에 탐정 에르큘 푸아로다). 이야기도 기발했지만 저자는 제목에도 호기심을 느꼈다. (크리스티의 다른 여러 제목처럼) 제목을 따온 동요 'Sing a Song of Sixpence'가 터무니없다는 점은 제쳐 두더라도, 호밀(rye), 한국어로 homil이란 무엇일까? homil은 '북방 유목민의 밀'이라는 뜻이다. mil은 밀이고, ho는 중앙 · 북아시아 유목민에게서 왔다고 한국인이 (때로는 잘못) 여기는 것이면 무엇에나 붙이는 접두사다. 만주에서 몽골과 티베트를 거쳐 우즈베키스탄과 터키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호밀이 밀과 비슷한 무엇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곡물로 만든 것을 먹어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다. 영국에 가자 저자는 호밀을 먹어 봐야 했다. 가장 좋아하는 추리 소설 가운데 하나에서 핵심 장치인 곡물을 계속 모르고 지낼 수는 없었다. 처음 맛본 것은 영국의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Ryvita였다. 고소하고 살짝 신 호밀 맛이 아주 좋아, 대학원생 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밤참으로 자주 먹었다. 이어 여러 호밀빵을 맛보았는데, 독일의 펌퍼니켈 같은 진한 호밀빵은 저자 입맛에 좀 너무 묵직했지만 더 가벼운 빵, 특히 캐러웨이 씨를 넣은 빵은 아주 좋아했다. 나중에 핀란드를 방문하면서는 핀란드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특히 소나무 껍질 가루를 섞은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소나무 껍질 가루는 예전에 기근 때 먹던 음식으로, 핀란드는 실제로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1866~8)을 겪은 나라다. 그 빵을 먹으면 조금 쌀쌀한 북쪽 숲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호밀은 원래 오늘날의 터키에서 왔지만, 더 연약한 사촌인 밀이 자라지 못하는 거친 북쪽 기후에서도 자라는 강인한 곡물로서 북유럽 식량 체계의 상징이 되었다. 러시아가 최대 소비국이고, 폴란드는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으며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밀의 세계 챔피언은 독일로, 2위 생산국 폴란드보다 33% 많은,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한다. 호밀은 독일에 너무 중요해서 독일의 역사 서술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어법

- **Among my favourite Agatha Christie stories was A Pocket Full of Rye, featuring Miss Marple** : 전치사구(Among ...) + 동사 + 주어 도치. 주어가 작품 하나이므로 was. featuring = ~이 나오는(분사구).
- **the harmless-looking spinster whose shrewd observation, sharp wit and profound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make her a most formidable sleuth**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셋(and)이라 make. make + O + 명사(보어). a most + 형용사 = 매우 ~한(최상급이 아니다).
- **Never mind the nonsensical nature of the nursery rhyme, ..., from which the title is derived** : Never mind ~ = ~은 제쳐 두고. from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be derived from에서 from이 앞으로 나왔다).
- **Homil means 'northern nomads' wheat' – mil meaning wheat and ho being a prefix that we Koreans put on anything that we think (sometimes wrongly) came from nomadic peoples** : 독립분사구문 두 개(mil meaning · ho being). anything that we think came from ~ = 관계대명사 that이 삽입절 we think 뒤 came의 주어.
- **I had no idea what it actually was, never having eaten anything made with the grain** :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never + having p.p.) = 먹어 본 적이 없어서(이유). no idea 뒤 간접의문문 what it actually was. made with = anything을 꾸미는 과거분사.
- **a hardy grain that grows in the harsh northern climes where its more delicate cousin wheat cannot**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climes). cannot 뒤 grow 생략. its more delicate cousin과 wheat는 동격.
- **Finland is actually the last European country to have experienced famine – during 1866–8** : the last + 명사 + to V = 마지막으로 ~한. to have p.p. = 완료 부정사(이미 지난 1866~8년의 일).
- **Rye is so important for Germany that it even features prominently in its historiography** :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feature (v.) = 등장하다(자동사). its = 독일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pinster	미혼 여성(예스러운 말)	—	—
shrewd	날카로운, 기민한	astute	naive
formidable	만만찮은	redoubtable	feeble
sleuth	탐정	detective	—
intrigue (v.)	호기심을 자아내다	fascinate	bore
nonsensical	터무니없는	absurd	sensible
prefix	접두사	—	suffix
nomadic	유목의	wandering	settled
swath	넓은 지역	expanse	—
dense	(빵이) 묵직한, 빽빽한	heavy	light
famine	기근	starvation	abundance
hardy	강인한, 잘 견디는	robust	delicate
per capita	1인당	per person	—
historiography	역사 서술	—	—

내용 일치 A Pocket Full of Rye = 미스 마플이 나옴 · 제목은 동요 'Sing a Song of Sixpence'에서 · 93쪽 각주 i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자가 좋아함 · 부당하게 저평가 / 미스 마플 = 무해해 보이는 미혼 여성 · 날카로운 관찰 · 재치 · 심리 이해 · 가장

좋아하는 탐정은 푸아로 / homil = '북방 유목민의 밀' · ho = 유목민에게서 왔다고 (때로는 잘못) 여기는 것에 붙임 / Ryvita가 처음 · 고소하고 살짝 신맛 · 밤참 · 진한 펌퍼니켈은 너무 묵직 · 가벼운 빵(캐러웨이 씨) 좋아함 · 핀란드 소나무 껍질 가루(기근 음식) · 1866~8 기근 / 터키 원산 · 북유럽의 상징 · 러시아 최대 소비 · 폴란드 1인당 소비 · 수출 1위 · 독일 생산 1위(폴란드보다 33% 많음). **밑줄 의미** a key plot device = 호밀이 이 추리 소설의 핵심 장치 / burning the midnight oil =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 make you feel like you are standing in a slightly chilly northern forest = 소나무 껍질 맛이 북쪽 숲을 떠올리게 한다 / its more delicate cousin wheat = 밀은 호밀보다 추위에 약한 친척 곡물 / 지칭: 89쪽 ¶2 her(make her) = 미스 마플 · the title = A Pocket Full of Rye의 제목 / 89쪽 ¶3 it(what it actually was) = rye · the grain = 호밀 / 89쪽 ¶4 it(ate it) = Ryvita(호밀) · the ones · those = 크리스프브레드 · 호밀빵 / 89쪽 ¶5 it(has come to symbolize) · its = 호밀 / 90쪽 첫 줄 it(features) = 호밀 · its historiography = 독일의.

> **한 줄 요약** 크리스티의 소설 제목 속 호밀이 궁금했던 저자는 영국에서 호밀을 맛보았고, 터키에서 온 이 강인한 곡물은 북유럽의 상징이자 독일 역사에 두드러지는 작물이 되었다.

11-3 철과 호밀의 결혼 90쪽 ¶1 ~ ¶3

원문 위치 원서 90쪽 ¶1 ~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1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is the nickname for the political alliance brokered by Otto von Bismarck, the first chancellor of unified Germany	별명 · 인물
★	90쪽 ¶1	between the Junkers, the landed nobility mainly based in Prussia, and the newly emerging capitalists in 'heavy' industries, concentrated in the Rhineland	동맹의 두 축 — 지칭 문항
★	90쪽 ¶2 첫 문장	In 1879, Bismarck ditched his longstanding coalition partner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of 1871, the National Liberals, who supported, among other things, free trade	숫자 · 1871 ↔ 1879
▲	90쪽 ¶2 둘째 문장	He forged a new protectionist power bloc by getting the politically powerful rye-producing Junkers accept tariff protection	by + 동명사 · get + O + (to) V(원서 표기)
★	90쪽 ¶2 둘째 문장	the Rhenish heavy industries, like iron and steel, then struggling against superior British producers	관세가 필요했던 까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2 셋째 문장	he offered the Junkers tariff protection against cheap American grains that were beginning to flood into the European markets	맞교환 — 지칭 ④
★	90쪽 ¶2 셋째 문장	the increased settlement of the North American prairie (think … Little House on the Prairie – also see 'Okra') and the development of railways	미국 곡물의 두 까닭 · 「Okra」
◆	90쪽 ¶3 첫 문장	brokered by the 'Iron Chancellor', propelled the German economy to new heights	별명 · 어휘 ①
★	90쪽 ¶3 둘째 문장	to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and eventually catch up with the leading producers in Britain	어휘 문항 ②③
▲	90쪽 ¶3 둘째 문장	even though it meant more expensive food than would have been under free trade in agriculture	가정의 비교 · 어휘 ④(expensive ↔ cheaper)
◆	90쪽 ¶3 둘째 문장(괄호)	(but then most people had a higher income …, so higher food prices did not matter much)	저자의 단서

내용

'철과 호밀의 결혼'은 통일 독일의 첫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주선한 정치 동맹의 별명이다. 이 동맹은 주로 프로이센에 기반을 둔 지주 귀족인 융커(Junkers)와, 서쪽 라인란트에 몰려 있던 '중'공업의 신흥 자본가를 묶었다. 1879년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오래 함께해 온 연정 파트너로서 무엇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던 국민자유당을 버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센, 호밀을 생산하는 융커가, 당시 뛰어난 영국 생산자들에 맞서 고전하던 라인란트의 철강 같은 중공업에 대한 관세 보호를 받아들이게 해 새로운 보호주의 권력 블록을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 비스마르크는 융커에게, 유럽 시장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보호를 내주었다. 미국 곡물이 밀려든 것은 북아메리카 대평원에 정착이 늘고(1970년대 미국 드라마 Little House on the Prairie를 떠올려 보라 — 「Okra」 참조), 대평원의 곡물을 동해안의 주요 항구로 실어 나를 철도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철의 재상(Iron Chancellor)'이 주선한, 호밀 생산자와 철 생산자의 이 동맹은 독일 경제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덕분에 철강 · 기계 · 화학 같은 새 중공업은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마침내 영국의 선도 생산자들을 따라잡았다. 농업이 자유무역이었다면 그랬을 것보다 식량이 비싸졌지만, 독일의 산업화가 더 성공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더 높은 소득을 얻었으므로 높은 식량 가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어법

- **the political alliance brokered by Otto von Bismarck, …, between the Junkers, …, and the newly emerging capitalists in 'heavy' industries** : brokered = alliance를 꾸미는 과거분사. between A and B의 A · B 뒤에 각각 동격 설명이 끼었다.

- **Bismarck ditched his longstanding coalition partner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of 1871, the National Liberals, who supported, among other things, free trade** : the National Liberals = 앞 명사구와 동격. who = 계속적 용법. among other things = 삽입(여러 가운데서도).
- **He forged a new protectionist power bloc by getting the politically powerful rye-producing Junkers accept tariff protection** : by + 동명사 = 수단. '~하게 하다'의 get은 get + O + to V가 표준 어법인데 원서는 to 없이 accept로 적었다(원서 표기).
- **the Rhenish heavy industries, like iron and steel, then struggling against superior British producers** : then struggling = (which were) then struggling — 당시 ~하고 있던(분사구). superior는 그 자체로 비교의 뜻이라 more를 붙이지 않는다.
- **cheap American grains that were beginning to flood into the European markets, thanks to the increased settlement … and the development of railways that could bring the grains …** :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두 번. thanks to 뒤에 명사구 두 개(settlement · development)가 and로 병렬.
- **This alliance between the rye producers and the iron producers, brokered by the 'Iron Chancellor', propelled the German economy to new heights** : 주어(This alliance …) + 삽입된 과거분사구 + 동사 propelled. propel A to B = A를 B로 밀어 올리다.
- **It allowed the new heavy industries – iron, steel, machinery, chemicals – to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and eventually catch up with the leading producers in Britain** : allow + O + to V. to grow와 (to) catch up이 and로 병렬. It = 앞 문장의 동맹.
- **even though it meant more expensive food than would have been under free trade in agriculture** : than would have been ~ = 사실과 반대되는 경우와의 비교(농업이 자유무역이었다면 그랬을 것보다). even though = 양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liance	동맹	coalition	rivalry
broker (v.)	주선하다, 중재하다	arrange	—
landed	땅을 가진	propertied	landless
nobility	귀족(계급)	aristocracy	commoners
ditch (v.)	버리다	abandon	keep
forge (v.)	(관계를) 만들어 내다	build	break
protectionist	보호무역주의의	—	free-trade
tariff	관세	duty	—
superior	뛰어난	better	inferior
flood into	~로 밀려들다	pour into	—
settlement	정착	colonization	—
propel	밀어 올리다, 나아가게 하다	drive	hinder
catch up with	따라잡다	draw level with	fall behind
industrialization	산업화	—	deindustrialization

내용 일치 '철과 호밀의 결혼' = 비스마르크(통일 독일의 첫 총리)가 주선한 동맹 · 융커(주로 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 중공업 신흥 자본가(서쪽 라인란트) / 1879 = 1871년 통일 이후의 연정 파트너 국민자유당(자유무역 지지)을 버림 · 융커가 라인란트 중공업(철강)의 관세를 받아들이게 함 · 대가로 융커에게 값싼 미국 곡물에 맞선 관세 / 미국 곡물 = 대평원 정착 증가 · 동해안

항구로 가는 철도 / 결과 = 독일 경제를 새 높이로 · 철강 · 기계 · 화학이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음 · 식량은 더 비쌌지만 소득이 높아져 큰 문제 아님. **밑줄 의미**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 철(중공업 자본가)과 호밀(융커 지주)의 정치적 결합 / grow behind protective walls = 관세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다 / propelled the German economy to new heights = 독일 경제를 크게 끌어올렸다 / so higher food prices did not matter much = 소득이 더 올라 비싼 식량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저자의 단서 / 지칭: 90쪽 ¶2 his(coalition partner) · He · he = 비스마르크 · who = 국민자유당 · that(were beginning) = 미국 곡물 · that(could bring) = 철도 / 90쪽 ¶3 It(allowed) · it(meant) = 동맹(곡물 관세를 포함한 맞교환).

> **한 줄 요약** 1879년 비스마르크는 호밀을 기르는 융커와 중공업 자본가를 서로의 관세로 묶었고, 이 '철과 호밀의 결혼' 덕분에 독일 중공업은 보호 속에서 자라 영국을 따라잡았다.

11-4 골수 보수주의자가 세운 첫 복지국가 90쪽 ¶4 ~ 91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0쪽 ¶4 ~ 91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0쪽 ¶4 둘째 문장	There is another legacy of his that has had even an bigger impact – and far beyond Germany: the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전환 · 원서 표기 an bigger
★	90쪽 ¶5	Many people think that the welfare state is the product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like the New Deal Democrats …	통념 — 제목 1순위
★	90쪽 ¶5	but it actually was the arch-conservative Bismarck who created it first	It was ~ who 강조 · 사실
★	90쪽 ¶6 첫 문장	In 1871, soon after unifying Germany, which had until then been divided into dozens of political entities (around 300 …)	숫자 · 순서 문항의 주어진 글
▲	90쪽 ¶6 첫 문장	an insurance programme protecting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현재분사의 뒤 수식
★	90쪽 ¶6 둘째 문장	Although it covered only a limited range of workers, rather than being a universal scheme, it was the world's first public insurance for working people	순서 (B)
★	90쪽 ¶7 첫 문장	Once he consolidated his power with the 'marriage of iron and rye' in 1879 … public health insurance in 1883 and a public pension in 1889	숫자 1순위 · 순서 (C)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첫 줄(90쪽 ¶7 둘째 문장)	In 1884, he extended his earlier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to cover all workers	1884 — 연도 함정
★	91쪽 첫 줄(90쪽 ¶7 셋째 문장)	Germany didn't quite manage to introduce the first-ever unemployment insurance (that honour goes to France)	독일 ↔ 프랑스 함정 · 순서 (A)
◆	93쪽 각주 ii	Germany introduced unemployment insurance in 1927 ... starting with France in 1905	숫자
★	91쪽 첫 줄	but Bismarck can be credited for establishing the first welfare state in history	결론

내용

비스마르크의 유산은 독일 중공업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영향을, 그것도 독일을 훨씬 넘어서 끼친 유산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복지국가의 수립이다. 많은 사람은 복지국가가 미국의 뉴딜 민주당, 영국 노동당,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당 같은 '진보' 정치 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였다. 1871년, 그때까지 수십 개(18세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300개)의 정치 단위로 나뉘어 있던 독일을 통일한 직후,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를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 일부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세계 최초의 공적 보험이었다. 1879년 '철과 호밀의 결혼'으로 권력을 굳히자 비스마르크는 복지 정책을 더 서둘러, 1883년 공적 건강 보험을, 1889년 공적 연금을 도입했다. 둘 다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던 것이다. 1884년에는 앞서 만든 산재 보험을 모든 노동자로 넓혔다. 독일은 현대 복지국가의 또 다른 핵심인 실업 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그 영예는 프랑스에 돌아간다(93쪽 각주 ii: 독일은 1927년에 실업 보험을 도입했는데, 그때는 1905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미 여러 나라가 도입한 뒤였다). 그래도 비스마르크는 역사상 최초의 복지국가를 세운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

어법

- **Bismarck's legacy didn't end with the development of German heavy industries** : end with ~ = ~으로 끝나다. 부정문이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 다음 문장에서 또 다른 유산을 꺼낸다.
- **There is another legacy of his that has had even an bigger impact – and far beyond Germany: the establishment of the welfare state** : a legacy of his = 이중 소유격. even + 비교급 = 훨씬 더. 원서 표기 an bigger(보통은 a bigger). 콜론 뒤 = legacy의 내용.
- **it actually was the arch-conservative Bismarck who created it first** : It was ~ who ... 강조 구문(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라 who). 앞 절의 통념(진보 세력)과 맞선다.
- **soon after unifying Germany, which had until then been divided into dozens of political entities** : after + 동명사(의미상 주어 = Bismarck). had been divided = 과거완료 수동(통일 이전까지 이어진 상태).
- **Although it covered only a limited range of workers, rather than being a universal scheme, it was the world's first public insurance for working people** : Although = 양보. rather than + 동명사 = ~이 아니라. 두 it = 1871년의 보험 제도.
- **Once he consolidated his power ..., Bismarck accelerated his push for welfare measures and introduced public health insurance in 1883 and a public pension in 1889 – both unprecedented anywhere in the world** : Once = ~하자(접속사). 대시 뒤 both unprecedented = 앞의 두 제도를 덧붙여 설명하는 형용사구.

- **In 1884, he extended his earlier industrial-accident insurance to cover all workers** : extend A to V = A를 넓혀 ~하게 하다. earlier = 1871년에 만든 것을 가리킨다.
- **Bismarck can be credited for establishing the first welfare state in history** : be credited for -ing = ~한 공로를 인정받다(조동사 + 수동). for 뒤 동명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gacy	유산	heritage	—
progressive	진보적인	reformist	conservative
arch-conservative	골수 보수주의자(의)	reactionary	—
unify	통일하다	unite	divide
entity	독립체, 단위	unit	—
universal	보편적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comprehensive	selective
scheme	제도	programme	—
consolidate	굳히다, 강화하다	strengthen	weaken
accelerate	서두르다, 가속하다	speed up	slow down
unprecedented	전례 없는	unheard-of	commonplace
extend	넓히다, 확대하다	expand	restrict
pension	연금	—	—
keystone	핵심, 요체	cornerstone	—
credit (v.)	(공로를) 인정하다	acknowledge	—

내용 일치 비스마르크의 또 다른 유산 = 복지국가(독일을 훨씬 넘어선 영향) / 통념 = 진보 세력(뉴딜 민주당 · 영국 노동당 · 스칸디나비아 사민당)의 산물 · 사실 =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처음 / 1871 = 통일 직후(그전엔 수십 개, 18세기엔 약 300개 단위) · 산재 보험 · 일부 노동자만 · 세계 첫 노동자 공적 보험 / 1879 권력 강화 → 1883 공적 건강 보험 · 1889 공적 연금(전례 없음) · 1884 산재 보험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 / 첫 실업 보험 = 프랑스(1905) · 독일 1927(각주 ii) / 그래도 역사상 첫 복지국가. **밑줄 의미** even an bigger impact – and far beyond Germany = 중공업보다 더 크고, 독일 밖까지 퍼진 영향 / the arch-conservative Bismarck = 진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제도를 보수의 상징이 만들었다는 반전 / that honour goes to France = 첫 실업 보험의 영예는 프랑스의 것 / 지칭: 90쪽 ¶4 his = 비스마르크의 / 90쪽 ¶5 it(created it) = the welfare state / 90쪽 ¶6 which = Germany · it(covered · was) = 1871년의 산재 보험 / 90쪽 ¶7 he · his = 비스마르크 · both = 건강 보험과 연금 / 91쪽 첫 줄 another keystone = 실업 보험.

> **한 줄 요약** 복지국가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1871년 산재 보험에서 시작해 건강 보험 · 연금으로 넓히며 처음 세운 것이다.

11-5 사회주의를 막으려던 복지, 그리고 '공짜'라는 오해 91쪽 ¶1 ~ 92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1쪽 ¶1 ~ 92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1 첫~둘째 문장	Bismarck didn't introduce the welfare state because he was a 'socialist' … He was a famous anti-socialist	not ~ because — 부정의 범위
★	91쪽 ¶1 셋째 문장	Between 1878 and 1888, he maintained the so-called anti-socialist laws … although they fell short of banning the party altogether	숫자 · 금지 ↔ 금지까지는 못함
▲	91쪽 ¶1 넷째 문장	unless workers were given protection against major shocks of life …, they would be attracted to socialism	unless · 시제 일치
◆	91쪽 ¶1 다섯째 문장	in order to keep socialism at bay	밑줄 의미 1순위
★	91쪽 ¶2 첫~둘째 문장	many socialists, especially in Germany, were against the welfare state in the beginning … 'buying off' workers	어법 문항 ①
★	91쪽 ¶2 셋째 문장	reformist tendencies beat revolutionary ones … especially following the Great Depression	어법 문항 ②③
★	91쪽 ¶2 넷째 문장	they realized that giving security to ordinary citizens was vital for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어법 ⑤
◆	91쪽 ¶3	It is not just in terms of its origin that the welfare state is misunderstood. So is its very nature.	강조 구문 · So + V + S — 전환
★	91쪽 ¶4 첫 문장	The most common misunderstanding … is that its main function is to give 'free' stuff to poorer people	문장 삽입 문항
◆	91쪽 ¶4 둘째 문장	These 'freebies' are, it is believed, paid for by the taxes that richer people pay	전언(it is believed) — 주어진 문장
★	91쪽 ¶4 셋째 문장	a vehicle for poorer people to free-ride on richer people … 'welfare scroungers'	통념의 표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5 첫~둘째 문장	However, welfare benefits are not free. Everyone pays for them.	요약문 (A) · (B)
★	91쪽 ¶5 셋째~다섯째 문장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income tax … 'indirect taxes'	세 가지 부담
★	92쪽 첫 줄	in the UK, as of 2018, the poorest 20% of households paid 27% of their income in indirect taxes, while the richest 20% paid only about 14%	숫자 1순위

내용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를 도입한 것은 그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요즘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소리를 듣기 쉽지만, 그는 이름난 반사회주의자였다. 1878년부터 1888년까지 그는 이른바 사회주의자 법을 유지해 사회민주당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다만 당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가 삶의 큰 충격(산업 재해 · 질병 · 노령 · 실업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사회주의에 끌릴 것임을 절실히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비스마르크는 요즘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여기는 그 복지 제도들을,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시작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자, 특히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에 복지국가에 반대했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노동자를 '매수해'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좌파 운동 안에서 개혁 성향이 혁명 성향을 이겼고, 좌파 정당들은 특히 대공황 뒤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그 확대를 적극 요구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유럽의 많은 중도 우파 정당까지 복지국가를 받아들였다. 특히 소련 블록 나라들과의 체제 경쟁 앞에서, 보통 시민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오해받는 것은 기원만이 아니다. 그 본질도 오해받는다. 가장 흔한 오해는 복지국가의 주된 기능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 지원 · 연금 · 주거 보조금 · 의료 · 실업 수당 같은 '공짜'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공짜'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고들 믿는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무임승차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이런 생각은 복지 수급자를 비난하는 데 쓰이는, 점점 흔해지는 영국 표현 'welfare scroungers'(복지에 빌붙는 사람들)에 드러난다. 그러나 복지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모두가 그 값을 낸다. 사람들이 받는 복지 혜택의 상당수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내는 '사회보장' 기여금, 곧 노령 · 실업 같은 일에 대비한 특정 공적 보험 제도에 묶인 납부금으로 마련된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세를 낸다('균일세'를 매기는 나라가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소득에서 더 낮은 비율을 소득세로 내지만). 게다가 소득세나 사회 보장 기여금을 면제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 일반 판매세 · 수입 관세 같은 '간접세'를 낸다. 실제로 이 세금들은 비율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무겁다. 예를 들어 2018년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20% 가구는 소득의 27%를 간접세로 냈지만, 가장 부유한 20%는 약 14%만 냈다.

어법

- **Bismarck didn't introduce the welfare state because he was a 'socialist', as anyone supporting the welfare state is apt to be called these days** : not ~ because … = …라서 ~한 것은 아니다(부정이 because절에 걸린다). as = '~처럼'(관계사적 as). be apt to V = ~하기 쉽다. supporting = anyone을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 **But he was acutely aware that, unless workers were given protection against major shocks of life …, they would be attracted to socialism** : unless = if not. 주절이 과거(was aware)라 that절도 과거 시제(were given · would be)로 맞췄다. give + O + O의 수동 = be given + O.
- **Bismarck initiated those welfare schemes that many people these days consider 'socialist' in order to keep socialism at bay** : consider + O + 보어에서 O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에 나갔다. in order to V = 목적. keep ~ at bay = ~을 막다.

- **They saw it as a way of 'buying off' workers and stopping them from overthrowing capitalism** : see A as B = A를 B로 보다. of 뒤 동명사 두 개(buying off · stopping) 병렬. stop + O + from -ing.
- **as they realized that giving security to ordinary citizens was vital for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 동명사 주어(giving security …)는 단수 → was. vital for -ing = ~에 꼭 필요한.
- **It is not just in terms of its origin that the welfare state is misunderstood. So is its very nature.** : It is ~ that 강조 구문(부사구 in terms of its origin을 강조). So + be + 주어 = ~도 그렇다(앞 문장의 is misunderstood를 받는다). very = 바로 그(강조).
- **These 'freebies' are, it is believed, paid for by the taxes that richer people pay** : it is believed = 삽입절(그렇게들 믿는다 — 전언). pay for의 수동 = be paid for(for를 빠뜨리면 오답).
- **even the poorest people who are exempt from income tax 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y 'indirect taxes' when they buy things** : 주어 the poorest people + 관계절(who … contributions) + 동사 pay(복수). be exempt from = ~을 면제받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e apt to	~하기 쉽다	be likely to	—
acutely	절실히, 날카롭게	keenly	dimly
keep ~ at bay	막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fend off	—
buy off	매수하다	bribe	—
overthrow	뒤엎다, 타도하다	topple	uphold
reformist	개혁주의의	—	revolutionary
embrace	받아들이다	adopt	reject
freebie	공짜(로 주는 것)	handout	—
free-ride	무임승차하다	freeload	—
denounce	비난하다	condemn	praise
recipient	받는 사람, 수급자	beneficiary	donor
contribution	(사회 보험) 기여금, 납부금	payment	—
exempt from	~이 면제된	free from	subject to
burdensome	부담스러운	onerous	light

내용 일치 비스마르크 = 사회주의자라서가 아님 · 이름난 반사회주의자 · 1878~1888 사회주의자 법(사회민주당 활동 크게 제한 · 금지까지는 아님) · 보호가 없으면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끌린다고 봄 ·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복지 시작 / 처음엔 사회주의자(특히 독일)가 반대('매수') · 좌파 = 개혁 성향이 혁명 성향을 이김 · 대공황 뒤 확대 요구 · 2차 대전 뒤 유럽 중도 우파도(소련 블록과의 체제 경쟁) / 오해 = 가난한 사람에게 '공짜' · 부자의 세금으로(it is believed) · 무임승차 · 'welfare scroungers' / 실제 = 모두가 냄 ·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 간접세 · 간접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무거움(2018 영국 27% ↔ 14%). **밑줄 의미** to keep socialism at bay = 노동자가 사회주의로 기울지 못하게 막다 / 'buying off' workers = 복지로 노동자를 달래 혁명을 포기하게 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 So is its very nature = 기원만이 아니라 본질도 오해받는다 / 'welfare scroungers' = 복지 수급자를 남에게 빌붙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말 / 지칭: 91쪽 ¶1 He · he = 비스마르크 · they(fell short) = 사회주의자 법 · they(would be attracted) = workers / 91쪽 ¶2 They = 사회주의자들 · it(saw it) = 복지국가 · them(stopping them) = workers · ones = tendencies · they(realized) = 중도 우파 정당 / 91쪽 ¶4 its = 복지국가의 · It(is seen) = 복지국가 / 91쪽 ¶5 them(pays for them) = welfare benefits · they(live · buy) = 가난한 사람들.

한 줄 요약 반사회주의자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복지가 부자의 세금으로 주는 '공짜'라는 생각과 달리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 값을 낸다.

11-6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보험 92쪽 ¶1 ~ 93쪽 ¶1

원문 위치 원서 92쪽 ¶1 ~ 9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2쪽 ¶1 첫 문장	Understood this way, no one is getting 'free' stuff through the welfare state	분사구문(조건) · 결론
◆	93쪽 각주 iii	Unless they are corporations that pay their workers below the living wage … booking their income in tax havens	저자의 단서(예외)
★	92쪽 ¶1 둘째~넷째 문장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the NHS (National Health Service) … But you have paid for your hospital visit	요약문의 마지막 문장
★	92쪽 ¶2 첫 문장	a package of social insurances, covering eventualities that can happen to anyone, collectively purchased by all citizens	요지 1순위
◆	92쪽 ¶2 둘째 문장	It may (but may not …) have an element of downward redistribution of income, but that is not even its main role	단서 — 단정 금지
★	92쪽 ¶3 첫 문장	we all get the same package of insurances at a lower price by buying in bulk	요지
★	92쪽 ¶3 둘째 문장	the US, which is the only rich country that does not have universal public health insurance	일치
★	92쪽 ¶4 첫 문장	at least 40% more and up to two-and-a-half times more … (17% of GDP against the range of 6.8% for Ireland to 12% for Switzerland)	숫자 1순위
★	92쪽 ¶4 둘째~셋째 문장	the worst health records in the rich world … fragmented and thus cannot benefit from collective purchases	까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3쪽 각주 iv	higher income inequality … 'status anxiety' … The Spirit Level … 'food deserts'	다른 까닭들
◆	92쪽 ¶4 다섯째 문장	if you have participated in collective purchase schemes, like Groupon,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밑줄 의미 1순위
★	92쪽 ¶5 첫 문장	the most effective way of dealing with the inevitable insecurity that capitalism creates in its pursuit of economic dynamism	주장 · 통합 사고 빈칸
★	92쪽 ¶5 둘째 문장	it reduces people's resistance to new technologies and new working practices – the Nordic countries	주장 · 「Strawberry」
★	93쪽 첫 줄 · 93쪽 각주 v	spreading and growing, despite the continuous attack … since the 1980s / 1930 1–2% · 4.8% · 1980 15.4% · 20.8%	숫자
◆	93쪽 ¶1	owe their security – and prosperity – to a humble, hardy grain … could not have forged	결론 · without 가정법

내용

이렇게 이해하면 복지국가를 통해 '공짜'를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93쪽 각주 iii: 노동자에게 생활임금보다 적게 주어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복지국가에 기대게 만들면서, 소득을 조세 피난처에 올려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라면 예외다). 무엇이 '공짜'로 보인다면, 그것은 '이용하는 시점에 무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아래의 공공 의료 덕분에 병원에 갈 때마다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병원 방문의 값은 세금과 사회 보장 기여금으로 이미 냈다(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낸다). 복지국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사는 사회 보험의 묶음으로 보는 편이 낫다.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아래로 향하는 소득 재분배의 요소가 있을 수도(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된 역할조차 아니다. 복지국가의 요점은 시민(과 장기 거주자)인 우리 모두가 대량으로 사서 같은 보험 묶음을 더 낮은 값에 얻는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방법은, 보편적 공적 건강 보험이 없는 유일한 부자 나라인 미국의 의료비를 다른 부자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GDP 대비로 미국은 비슷하게 부유한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에 적어도 40%, 많게는 2.5배를 더 쓴다(GDP의 17% 대 아일랜드 6.8%~스위스 12%). 그런데도 미국의 건강 기록은 부자 나라 가운데 최악이어서, 미국에서는 '건강'이 다른 부자 나라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93쪽 각주 iv: 미국의 더 큰 소득 불평등은 스트레스가 크고 식사가 부실한 사람을 비율상 더 많이 만들고, Richard Wilkinson과 Kate Pickett의 유명한 책 The Spirit Level에 따르면 불평등이 클수록 건강에 해로운 '지위 불안'도 커진다. 가공식품 산업의 힘이 더 커 미국인은 건강에 나쁜 음식을 더 먹고, 미국 도시가 지어진 방식 때문에 값싸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이 더 많다), 중요한 까닭 하나는 미국 의료 체계가 쪼개져 있어 더 통합된 체계를 가진 나라만큼 집단 구매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병원(또는 병원 그룹)마다 '대량 구매' 할인을 누리는 국가 체계를 거치지 않고 약품과 장비를 따로 사야 하고, 의료 보험 회사마다 (이윤을 좇는 기업이라 더 높은 보험료를 매기는 데다)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통합 체계가 아닌 자체 행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집단 비용 절감'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 독자도 있겠지만, Groupon 같은 공동 구매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복지국가의 바탕 생각을 받아들인 셈이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역동성을 좇으며 만들어 내는, 피할 수 없는 불안정(insecurity)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더욱이 잘 설계되면 복지국가는 새 기술과 새 노동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북유럽 나라들이 가장 좋은 예다(「Strawberry」 참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복지국가가 퍼지고 커져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93쪽 각주 v: 1930년 오늘날 부자 나라들의 복지 지출은 대개 GDP의 1~2%였고 독일이 4.8%로 가장 컸다. 1980년에는 평균 15.4%, 오늘날(2010~16년)에는 20.8%다).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더 잘 알려진 사촌인 밀보다 못하다고 흔히 여겨지는 보잘것없고 강인한 곡물에 빚지고 있다. 프로이센 지주들이 생산한 호밀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 준 정치 동맹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법

- **Understood this way, no one is getting 'free' stuff through the welfare state** : Understood this way = (If it is) understood this way — 수동 분사구문(조건). 의미상 주어 = 복지국가(앞 단락의 내용).
- **If anything looks 'free', it is because it is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it is because ~ = 그것은 ~ 때문이다(까닭을 밝히는 구문). look + 형용사(보어).
- **But you have paid for your hospital visit (and will keep paying for it in the future) through your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have paid = 현재완료(이미 냈다). will keep -ing = 계속 ~할 것이다. through = 수단.
- **The welfare state is better seen as a package of social insurances, covering eventualities that can happen to anyone, collectively purchased by all citizens** : be better seen as ~ = ~로 보는 편이 낫다. covering(능동 · 현재분사)과 purchased(수동 · 과거분사)가 둘 다 package를 꾸민다.
- **The point of the welfare state is that, as citizens (and long-term residents), we all get the same package of insurances at a lower price by buying in bulk** : be동사 뒤 that절 = 보어. as = 자격(~으로서). by + 동명사 = 수단.
- **compare healthcare cost in the US, ..., with that in other rich countries** : compare A with B. that = healthcare cost(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 **the country has the worst health records in the rich world, meaning that 'health' is far more expensive in the US** : meaning that ~ = 결과 · 해석을 덧붙이는 분사구문(그러니 ~라는 뜻이다). far + 비교급 = 훨씬.
- **For without protecting the rye produced by Prussian landlords, Bismarck could not have forged the political alliance that enabled him to build the first welfare state** : For = 이유의 접속사. without ~ = if절을 대신하는 가정(~하지 않았다면) + could not have p.p.(가정법 과거완료). enable + O + to V.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ccess	이용, 접근	entry	—
socialized	공영화된	public	private
eventuality	만일의 사태	contingency	—
collectively	집단으로, 함께	jointly	individually
redistribution	재분배	reallocation	—
in bulk	대량으로	wholesale	—
fragmented	쪼개진, 분산된	divided	unified
premium	보험료	—	—
buy into	(생각을) 받아들이다	accept	rejec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insecurity	불안정, 불안	uncertainty	security
dynamism	역동성	vitality	stagnation
resistance	저항	opposition	acceptance
humble	보잘것없는	modest	grand

내용 일치 복지국가로 '공짜'를 얻는 사람은 없음(각주 iii = 생활임금 이하 · 조세 피난처 기업은 예외) · 이용 시점에만 무료(NHS) · 이미 세금 · 기여금으로 냄 / 사회 보험 묶음 · 모든 시민이 함께 삼 · 재분배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 주된 역할 아님 · 대량 구매로 더 싸게 / 미국 = 보편적 공적 건강 보험 없는 유일한 부자 나라 · 적어도 40% 많게는 2.5배 · 17%(아일랜드 6.8% ~ 스위스 12%) · 최악의 건강 기록 · 쪼개진 체계 · Groupon /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잘 설계되면 더 역동적(북유럽) · 1980년대 이후 공격에도 확산(각주 v) / 안전과 번영 = 호밀 덕분. **밑줄 의미** free at the point of access =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을 뿐, 값은 이미 냈다 / collectively purchased by all citizens =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보험 /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 함께 사서 값을 낮추는 공동 구매의 논리를 이미 받아들였다 / a humble, hardy grain = 밀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호밀이 복지국가를 낳은 동맹의 바탕 / 지칭: 92쪽 ¶1 it(is because) = 공짜로 보이는 것 · it(paying for it) = hospital visit / 92쪽 ¶2 It · its = 복지국가 · that(is not even) = 소득 재분배 / 92쪽 ¶3 that(with that) = healthcare cost / 92쪽 ¶4 the country = 미국 · them(buying them) = medicines and equipment · its counterparts = 다른 나라의 의료 체계 / 92쪽 ¶5 it(reduces) = 복지국가 / 93쪽 ¶1 him = 비스마르크.

> **한 줄 요약** 복지국가는 모두가 값을 내고 함께 대량으로 사는 사회 보험이며 자본주의의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출발은 비스마르크가 보호한 호밀에 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1 RYE]

범위	Rye (원서 PDF 88~93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apitalism keeps chasing economic dynamism, and in doing so it unavoidably leaves people insecure. The welfare state has turned out to be the best tool we have for handling this insecurity. What is more,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give capitalist economies still more dynamism, because people who feel protected resist new technologies and new ways of working less fiercely; the Nordic countries show this best. Small wonder, then, that welfare states have kept growing despite neo-liberal attacks since the 1980s. People in rich countries today owe their security, and their prosperity, to the welfare state.

① Welfare states should be cut back for growth.
② Good welfare states make capitalism safer and more dynamic.
③ New technologies should be slowed down.
④ Neo-liberal attacks have shrunk welfare states.
⑤ Prosperity matters more than securit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ismarck left behind more than Germany's heavy industries. Another of his legacies has had an even greater impact, one felt far beyond Germany's borders: the creation of the welfare state.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welfare state grew out of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s, such as the New Deal Democrats in America, Britain's Labour Party or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Scandinavia. In reality, the first person to build one was Bismarck, a deeply conservative statesman. In other words, a system that many credit to progressives was pioneered by an arch-conservative.

① A Conservative Father of the Welfare State
② How the New Deal Created Welfare
③ Bismarck's Failure in Heavy Industry
④ Why Progressives Opposed Insurance
⑤ The Welfare State: A German Affair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better to think of the welfare state as a bundle of social insurances that all citizens buy together, covering misfortunes that could happen to anyone. Depending on the design of taxes and welfare programmes, it may or may not shift some income from the rich to the poor, but that is not really its central job. The real point is that all of us, citizens and long-term residents alike, obtain the same set of insurances more cheaply because we purchase them in bulk. Healthcare in the US, the only rich country lacking universal public health insurance, shows this clearly.

① Its main role is to take money from the rich.
② Buying insurance alone is cheaper than buying together.
③ Welfare should go only to the poorest citizens.
④ Long-term residents should be left out of it.
⑤ It is mainly cheaper insurance that all buy in bulk.

4. 밑줄 친 <u>to keep socialism at bay</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ismarck set up the welfare state, but not because he was a 'socialist', the label now readily attached to anyone who backs it. In fact, he was a well-known anti-socialist. From 1878 to 1888 he kept in place what were called anti-socialist laws, which severely limited w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ould do, though they stopped short of banning it entirely. Yet he understood very well that workers left without protection against life's major shocks, such as industrial accidents, illness, old age and unemployment, would be drawn to socialism. So he started welfare schemes that many people now call 'socialist' precisely <u>to keep socialism at bay</u>.

① to stop workers from being drawn to socialism
② to spread socialist ideas among workers
③ to ba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ompletely
④ to prove that he was a true socialist
⑤ to make workers pay for their own insurance

5. 밑줄 친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 a share of GDP, American healthcare spending is at least 40%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of similar wealth, yet America's health records are the worst in the rich world.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American healthcare is fragmented, so it cannot gain from buying together as much as more unified systems elsewhere can. Each hospital or hospital group buys its own medicines and equipment instead of enjoying national 'bulk buy' discounts, and each profit-seeking insurance company runs its own administration rather than sharing one that benefits from economies of scale. Some readers may doubt this argument for saving costs collectively. But if you have ever joined a group-buying scheme such as Groupon, then you have already bought into the idea behind the welfare state.

① you have already paid taxes to fund the welfare state
② you have already been cheated by private companies
③ you already depend on welfare benefits for survival
④ you already accept the logic of getting things cheaper by buying together
⑤ you have already rejected the idea of collective purchas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Otto von Bismarck, unified Germany's first chancellor, arranged an alliance that came to be called a 'marriage of iron and rye', joining the Junkers, landed nobles based mainly in Prussia, with the new capitalists of heavy industry in the Rhineland. In 1879, Bismarck dropped the National Liberals, ① his coalition partner since unification in 1871, who among other things favoured free trade. ② He then built a new protectionist bloc by persuading the powerful rye-growing Junkers to accept tariffs for Rhenish iron and steel, which were then struggling against stronger British rivals. In return, ③ he gave ④ them tariff protection against cheap American grain, which was beginning to flood European markets. The deal also helped Bismarck tighten ⑤ his grip on powe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Rye first came from what is now Turkey, but it has become a symbol of Northern European food systems: a tough grain that thrives in harsh northern climates where wheat, its more delicate relative, cannot grow. Russia is the largest consumer of rye, while Poland eats the most per person and also exports more of it than any other country. The true world champion of rye, however, is Germany, which produces the most, 33% more than Poland, the second-largest producer. Rye matters so much to Germany that it even appears prominently in the way German history has been written.

① 호밀은 원래 북유럽에서 비롯된 곡물이다.
② 호밀은 밀보다 연약해 추운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③ 1인당 호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다.
④ 호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폴란드다.
⑤ 독일의 호밀 생산량은 폴란드보다 33% 적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Once the author arrived in Britain, he felt he had to eat rye, since it was central to one of his favourite detective stories. The first thing he tried was Ryvita, a British rye crispbread. He loved rye's nutty, slightly sour taste and often had it as a snack late at night while working hard as a graduate student. Among rye breads, he thought dark ones such as German pumpernickel were rather too dense, but he loved the lighter kinds, especially those containing caraway seeds. Later, on visits to Finland, he came to love Finnish rye crispbreads, above all those mixed with pine bark flour, once a famine food. Finland, in fact, was the last European country to suffer a famine, in 1866–8.

① 저자가 처음 맛본 호밀 음식은 영국의 호밀 크리스프브레드 Ryvita였다.
② 저자는 대학원생 시절 호밀을 밤참으로 자주 먹었다.
③ 저자는 독일의 펌퍼니켈 같은 진한 호밀빵을 가장 좋아했다.
④ 소나무 껍질 가루는 예전에 기근 때 먹던 음식이었다.
⑤ 핀란드는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을 겪은 나라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For exactly this reason, many socialists, particularly in Germany, opposed the welfare state at first. They viewed it as a tool for 'buying off' workers and ① keeping them from toppling capitalism by revolution. Over time, however, reformist tendencies within the left ② beat revolutionary ones, and left-wing parties came ③ to accept the welfare state and push hard for its growth, especially once the Great Depression had struck.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many centre-right parties in Europe embraced it as well, ④ realizing that giving ordinary citizens security ⑤ were essential for political stability, all the more so when the Soviet bloc was offering a rival system.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chose Britain for his studies because he (A) [disillusioned / was disillusioned] by the narrow, technical Neoclassical economics taught in his undergraduate course in Korea. Back then, economics departments in Britain took a more pluralistic approach than (B) [did / were]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eaching Keynesian, Marxist and other schools. When he explained this, most economists, teachers and friends told him he was ruining his career before it had even started. Since the real reason was too complicated for non-economists, he came up with a ready answer: he loved 'deduction novels', and Britain produced the best of them. This answer stopped most people from (C) [asking / to ask] more questions, though he could tell they found him strange.

	(A)	(B)	(C)
①	disillusioned	did	asking
②	was disillusioned	did	asking
③	was disillusioned	were	to ask
④	disillusioned	were	asking
⑤	was disillusioned	did	to ask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e deal between rye producers and iron producers, arranged by the 'Iron Chancellor', ① propelled Germany's economy to new heights. Shielded by tariffs, the new heavy industries, such as iron, steel, machinery and chemicals, could grow behind ② protective walls and in time ③ catch up with Britain's top producers. This did mean, however, that food was ④ cheaper than it would have been if farming had been left to free trade. But since most people came to earn more thanks to Germany's mor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the higher food prices were only a ⑤ minor concern for them.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ne of the author's favourite Agatha Christie novels is A Pocket Full of Rye, which features Miss Marple, a harmless-looking spinster with a sharp eye, quick wit and deep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The story was clever, but the title also puzzled him: what was rye? In Korean, rye is homil, literally 'northern nomads' wheat': mil is wheat, and ho is a prefix that Koreans attach to anything they believe, sometimes wrongly, to have come from the nomads of Central and Northern Asia, a vast region covering Manchuria, Mongolia, Tibet, Uzbekistan and Turkey. So the author knew that rye was _____, but having never eaten anything made from it, he had no idea what it really was.

① a spice from Central Asia
② a grain much like wheat
③ a nomadic people of the north
④ a kind of Korean rice cake
⑤ a song about sixpenc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ose 'freebies', so the belief goes, are paid for out of the taxes of the better-off.

It is not only the origin of the welfare state that people get wrong; its very nature is misunderstood too. (①) The most common error is to think that its chief purpose is to hand out 'free' things to poorer people, such as income support, pensions, housing subsidies, healthcare and unemployment benefit. (②) In other words, the welfare state is regarded as a vehicle that lets the poor free-ride on those better-off taxpayers. (③) This view is reflected in 'welfare scroungers', an expression heard more and more often in Britain. (④) The phrase is used to condemn the people who receive welfare.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e author first met detective fiction as a boy, through Arthur Conan Doyle's Sherlock Holmes stories. ① Many of the short stories, such as 'The Red-Headed League', amazed him with their clever plots, while frightening scenes from novels like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stayed with him. ② In secondary school he read more than a hundred classic 'deduction novels', by writers such as Maurice LeBlanc, Ellery Queen, Georges Simenon and G. K. Chesterton. ③ In those days, going abroad to study meant, for Koreans, going to the US. ④ For him, though, the undisputed ruler of the genre was Agatha Christie, whose two billion book sales show that many agree. ⑤ Even after nearly fifty years and several rereadings, classics of hers such as The ABC Murders and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still give him a jol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1871, soon after he unified Germany, Bismarck set up an insurance scheme protecting worker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A) Germany did not quite manage to be the first country with unemployment insurance, another cornerstone of the modern welfare state; that honour belongs to France. Still, Bismarck deserves the credit for building history's first welfare state.

(B) Although the scheme covered only some groups of workers rather than everyone, it was the first public insurance scheme for workers anywhere in the world.

(C) Having tightened his hold on power in 1879 with the iron-rye alliance, he pushed ahead faster with welfare measures, introducing state health insurance in 1883 and state pensions in 1889, neither of which had existed anywhere before. In 1884 he also widened his earlier accident insurance to include all worker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body, in fact, gets welfare benefits for nothing. Many benefits are funded b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hich most taxpayers make to public insurance schemes against risks like old age and unemployment. Most people also pay income tax, though the poor usually pay a smaller share of their income in this tax than the rich do. Even the poorest, who pay neither, pay indirect taxes such as VAT and sales tax when they shop, and these hit the poor far harder: in the UK in 2018, the bottom fifth of households handed over 27% of their income as indirect taxes, the top fifth only about 14%. Some things look 'free' only because, like a visit to an NHS hospital, they cost nothing at the point of use.

→ Although welfare benefits may seem (A) _____ when people use them, everyone, even the poorest, actually (B) _____ them through taxes and contributions.

① free ..... pays for
② free ..... avoids
③ costly ..... pays for
④ costly ..... receives
⑤ unfair ..... avoid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Rye originally comes from present-day Turkey. Russia eats the most rye, Poland eats the most per person, and Germany grows the most. In Germany, Bismarck brought in accident insurance for workers in 1871, then health insurance (1883) and a state pension (1889). Unemployment insurance, however, was first introduced not by Germany but by France. In the UK in 2018, the poorest fifth of households spent 27% of their income on indirect taxes, while the richest fifth spent about 14%. The US spends 17% of its GDP on healthcare, more than other rich countries, yet it has the worst health records among them.

<QUIZ>

(1) Which country has the highest rye consumption per person?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Bismarck introduce health insurance?

Answer for (2): _____

(3) Which country first introduced unemployment insurance?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Bismarck introduce a state pension?

Answer for (4): _____

(5) Where does rye originally come from?

Answer for (5): _____

(6) What share of their income did the poorest fifth of UK households pay in indirect taxes in 2018?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US has the best health records among rich countri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889	N. Poland
B. True	O. 1883
C. False	P. Finland
D. Turkey	Q. 1866
E. Russia	R. Britain
F. Germany	S. 33%
G. 1871	T. 12%
H. 14%	U. 1878
I. 27%	V. 6.8%
J. 1879	W. 1927
K. 17%	X. 1905
L. 1884	Y. Switzerland
M. France	Z. Ireland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때 한국인에게 유학이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뜻했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02 영국의 경제학과들은 미국의 경제학과들보다 더 다원적인 접근을 제공했다. (than 뒤 대동사 · 도치)

03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stop + O + from -ing)

04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거사 크리스티 작품 가운데 하나는 A Pocket Full of Rye였다. (전치사구 도치)

05 그 곡물로 만든 것을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나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완료 분사구문의 부정)

06 핀란드는 기근을 겪은 마지막 유럽 나라다. (the last + 명사 + to have p.p.)

07 호밀은 독일에 너무 중요해서 독일의 역사 서술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so ~ that)

08 그것은 새 중공업이 보호의 벽 뒤에서 자라 마침내 영국의 선도 생산자들을 따라잡게 해 주었다. (allow + O + to V)

09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사실 골수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였다. (It was ~ who 강조)

10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그 복지 제도들을 시작했다. (in order to V / keep ~ at bay)

11 복지국가가 오해받는 것은 그 기원의 면에서만이 아니다. (It is ~ that 강조)

12 프로이센 지주들이 생산한 호밀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비스마르크는 그 정치 동맹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without + 가정법 과거완료)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영국 유학을 정한 때	
당시 한국인에게 유학이란	
영국을 고른 진짜 까닭 / 둘러댄 대답	
중등학교 때 읽은 고전 추리 소설	
애거사 크리스티의 판매 부수	
A Pocket Full of Rye의 탐정 /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탐정	
homil의 뜻	
영국에서 처음 맛본 호밀 음식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기근을 겪은 나라 / 시기	
호밀의 원산지	
최대 소비국 / 1인당 소비 · 수출 1위 / 최대 생산국	
'철과 호밀의 결혼'의 두 세력	
국민자유당을 버린 해 / 독일 통일	
값싼 미국 곡물이 밀려든 두 까닭	
산재 보험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확대 / 연금	

항목	답
첫 실업 보험 / 독일의 실업 보험	
사회주의자 법의 기간	
영국의 간접세 부담(2018)	
미국의 의료비(GDP 대비)	
복지 지출(GDP 대비, 93쪽 각주 v)	

4-3. 통합 사고 문제 — 2장과 11장을 잇는 자리

문제

2장에서 저자는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는 재산 소유자의 자유이며, 그와 부딪치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 이를테면 노동자가 단체 행동을 할 자유나 강한 복지국가가 실업자에게 주는, 새 일자리를 조금 더 가려 고를 자유는 기껏해야 무시되고 나쁘면 역효과를 낳는다고 비난받는다고 썼다(32쪽 ¶2). 또 지난 150년 동안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으로 된 것은 재산 소유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복지국가의 도입을 들고 「Rye」를 참조하라고 적었다(32쪽 ¶3). 11장에서 저자는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를 삶의 큰 충격(산업 재해 · 질병 · 노령 · 실업 등)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주의에 끌릴 것임을 알았다고 썼고(91쪽 ¶1),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 기술과 새 노동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썼다(92쪽 ¶5). 이를 바탕으로, 아래 92쪽 ¶5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i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2장과 11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장 또는 1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자본주의가 낳는 것: The welfare state has become the most effective way of dealing with the inevitable _____ that capitalism creates in its pursuit of economic dynamism.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